

이슈

2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제3163호

가요제·음악예능이 캠퍼스로 향하는 이유



싱그러운 청춘의 참신함을 전면에 내세우는 예능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채널A '보컬플레이2'(왼쪽사진)이다. 7년 만에 부활해 10월 펼쳐지는 '2019 대학가요제'의 심사위원단도 같은 포부를 밝혔다. 사진제공 | 채널A·CBSI

대학은 싱싱한 음악의 보물창고!

부모세대엔 향수, 2030세대엔 공감 추억의 '대학가요제' 7년 만에 부활 채널A '보컬플레이2' 대학생들 경쟁 전경남 PD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싶다"

내세우고 있다.

1977년 시작해 2012년 중단된 '대학가요제'가 7년 만에 다시 시청자를 찾는다. 10월5일 경기 고양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린다. 배철수, 노사연, 심수봉, 유열, 신해철, 김동률 등 스타들을 배출해 가요계의 '등용문' 역할을 했던 '대학가요제'가 새로운 스타를 내놓을지 시선이 쏠린다.

비슷한 시기 방송을 시작하는 채널A '보컬플레이2'도 최근 대학가를 돌며 촬영에 한창이다. 시즌1이 아카펠라 가수들의 대결을 그린 것과 달리 각 대학교를 대표하는 '대학생 음악가'들의 경쟁을 담는다. 대학교 합창 동아리들의 경

쟁을 다룬 '내 전공은 힙합'이란 또 다른 예능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대가 대학가로 새삼 시선을 돌리는 것은 신선함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보컬플레이2'의 연출자인 채널A 전경남 PD는 9일 "음악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와중에 트로트를 비롯한 각종 음악 장르가 예능프로그램에서 소진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색 있는 소재를 찾던 중 대학생들을 주목하게 됐다"면서 음악 전공자와 아마추어 음악인을 모두 아우르며 좀 더 신선한 음악과 그 매력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중문화계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도 한몫한다. 1980~90년대 대중문화 콘텐츠가 새삼 대중의 관심권에 들며 시선을 모으는 상황에서 과거 대학생으로 상징되는 '청춘'의 문화적 향수를 새롭게 자극한다는 기획이다.

그런 만큼 각 프로그램은 참신함에 초점을 맞춘다. '2019대학가요제' 심사위원인 가수 이재성은 "참신한 창작력과 시대정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PD도 "대학가는 예전부터 '실용음악'의 성지였다. 최근에도 자신의 고민을 직접 노래에 담아내는 대학생들이 많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날짜(장소)	전적	비고
1998. 12. 2(방콕)	2-3 패	아시아게임
2008. 2. 6(서울)	4-0 승	월드컵 예선
2008. 6. 14(아슈하바트)	3-1 승	월드컵 예선

첫 상대 튀르키예니스탄 2승보다 1패를 기억하라

98년 방콕AG 예선 방심하다 역전패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10일 오후 11시(한국시간) 튀르키예니스탄과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2022년 카타르월드컵 본선을 향해 첫 발을 댄다. 이날 경기는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1차전이다. 첫 경기의 중요성은



벤투 감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대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32위의 약체(한국은 37위)라고 해도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한국축구는 역대 튀르키예니스탄과 3번 맞붙어 2승1패를 기록했다.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1차전,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2번 싸웠다. 기록과 달리 실력차가 확연한 건 사실이다.

1998년 12월 2일 열린 방콕 아시안게임 예선리그 A조 1차전에서 한국은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당연히 압승을 예상했다. 경기 초반 최용수가 2골을 터뜨리며 쉽게 끝낼 것 같았다. 하지만 후반 들어 분위기가 갑자기 흐트러졌다. 자책골도 나왔다. 결국 2-3으로 역전패했다. 방심이 패인이었다.

양 팀은 10년 뒤 다시 조우했다.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이 열린 2008년 2월, 한국은 홈에서 설욕했다. 박태환의 헤딩 결승골과 설기현의 2골, 그리고 박지성의 썩지골을 묶어 4-0 대승을 거뒀다. 4개월 뒤 원정으로 치른 5차전에서도 한국은 3-1로 이겼다. 이번에는 김두현이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이제 11년 만에 다시 만난다. 이번에도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다. 당시 튀르키예니스탄의 FIFA 랭킹은 128위였고, 지금도 엇비슷하다(132위). 한국이 제대로 전력을 가동한다면 2~3골차 승리는 충분하다. 다만 1월 아시안컵 패처럼 일반적으로 잠그는 전술을 쓰는 상대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 튀르키예니스탄은 1차전(5일)에서 스리랑카를 2-0으로 이겨 분위기가 좋다. 방심 없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의 전술대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유럽파가 키맨...골 포문 누가 열까?

오늘 튀르키예니스탄과 2차 예선 첫 판

유럽파들 적응 유리...골 폭발 예감 김신욱 활용한 새로운 전술도 기대 이겨야하는 경기, 스리백 실험 금물

●위험한 실험은 NO

벤투 감독은 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치른 조지아 평가전(2-2)에서 다양한 실험을 했다. 스리백이 그 중 하나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포지션별 간극은 자주 벌어졌고, 개인 간의 거리도 타이트하지 못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자 혼란은 불가피했다.

대표팀은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그간 즐겨 구사한 4-2-3-1 포메이션을 대체할 전략 마련에 골몰해 왔다. 4-4-2에 가까운 4-1-3-2와 4-3-3이 사용됐고, 조지아전은 아예 3-5-2를 구성했다.

상대 진영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며 역습을 사전 차단한다는 의도였는데 조지아는 의외로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효율적인 공격 시도로 우리의 후방을 괴롭혔다. 이에 따라 승점 3이 무조건 필요한 튀르키예니스탄 원정은 익숙한 전략으로 임할 듯하다. 무리하게 테스트를 하려다 이도저도 아닌 최악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벤투호는 우려하고 있다.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과 황의조(27·지용명 보르도), 김신욱(31·상하이 선화) 등이 두 톱을 이루고 김영권(29·김바 오사



한국 축구대표팀이 10일(한국시간) 튀르키예니스탄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그동안 A매치에서 적응 및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럽파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유럽과 가까운 튀르키예니스탄의 시차 때문이다. 그 중심에 설 손흥민이 9일 훈련을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카)과 김민재(23·베이징 궈안)가 중심을 맡는 포백에 가장 무게가 실린다. 물론 손흥민이 워밍업으로 빠진 뒤 황의조나 김신욱이 원 톱에 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컨디션 최상, 유럽파의 활약

장거리 이동과 시차는 해외파의 가장 큰 고민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한 선수해야 할 숙명이기도 하다. 대표팀 '캡틴'의 계보를 이어온 박지성(은퇴)과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 등이 선배들보다 빨리 대표팀은 되돌아온 원인 중 하나다.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았고, 혹여 부상이라도 입으면 회복 속도가 더뎠다. 만약 홈경기를 치른 뒤 타 지역으로 원정을 향하면 또 다시 새로운 시차와 환경에 적응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적어도 튀르키예니스탄 원정은 그런 걱정이 없다. 오히려 K리그와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하는 동아시아 리그 멤버들에게 불리한 여건이다. 유럽에 가까운 시차에 적응해야 하고, 생체리듬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 튀르키예니스탄은 한국보다 4시간 느리다.

벤투 감독은 월드컵 2차 예선이 결정되자마자 일찌감치 유럽 원정을 기획했다. 그것도 7~8시간의 유럽 한복판이 아닌, 6시간 차의 터키 이스탄불에 여장을 풀었다. 유럽과 중동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스탄불로 먼저 이동해 동료들을 기다렸다.

9월 A매치 시리즈에 임한 태극전사 25명 중 해외파는 15명, 이중 유럽 리거는 7명이고 거의 대부분이 베스트11에 해당된다. 만약 베테랑 미드필더 이창용(31·보훤)이 무릎 부상 여파로 빠지지 않았다면 비중은 더욱 늘어날 수 있었다. 적어도 컨디션 측면에서 중동과 서아시아 원정은 대표팀에게 마냥 불리하지는 않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중원의 연결고리...시험대 오르는 정우영

황인범·백승호·주세종 등 테스트 정우영, 기성용의 중원 파트너 경험

감이 노출됐다. 공수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다. 미드필드에서의 실수가 실점으로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니스탄전에서 중원을 책임질 주인공이 누가될 것인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이후 벤투 사단은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의 변화가 불가피했다. 중원 사령탑이자 리더였던 기성용(30·뉴캐슬)이 아시안컵 직후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우영

최근까지 5차례 평가전에서 여러 명의 선수가 테스트를 받았다. 황인범(23·밴쿠버 화이트캡스), 백승호(22·다름슈타트), 주세종(29·FC서울)

등이 번갈아 기성용 자리에서 뛰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한 자리를 가져간 선수는 없었다. 황인범이 근소하게 앞선 듯 했지만 확실한 지배력을 선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우영(30·알 사드)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정우영은 기성용의 파트너로 오랜 시간 대표팀 중원에서 활약한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수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부상으로 올해 6월 A매치에서 제외됐지만 건강하게 복귀해 튀르키예니스탄과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최용석 기자 gilyong@donga.com